

주요국의 COVID-19 대응 관련 정보(8)¹⁾

허 덕

(KREI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겸 편집인)

I. 북미

[미국]

1. (2020년 12월 29일) 美 유업계, 코로나19 확산으로 결식 가정 돕기 위해 마련된 Bones Love Milk 캠페인 추진-스케이트보드 매니아 영화배우 출연 온라인으로... 연초까지 25만명에게 우유와 식사 제공 목표

미국의 유명 우유소비촉진 캠페인인 갓밀크(Got Milk)를 선도해온 캘리포니아 유가공협회가 최근 영화배우이자 스케이트 매니아인 잭 딜런 그레이저와 함께 뼈는 우유를 사랑해(Bones Love Milk)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배고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끼니를 제공하고 자 마련된 것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스케이트를 통한 기부(#SkateToDonate)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1건당 1달러를 구호단체인 Feeding America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푸드뱅크를 통해 우유를 포함한 25만개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내년 1월 15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 가정이 늘고 있어 시민들에게 친숙한 연예인과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활용한 기부금 모금을 통해 이들에게 끼니를 제공하고, 우유의 영양학적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캠페인을 기획했다” 고 말했다.

1) 이 글은 COVID-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상황과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TRA, 해외 각 언론사 보도자료 등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지난 1편~5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보완을 위해 지난 일자의 조치들 중 빠진 부분도 동시에 수록하였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마케팅] 美 유업계, 결식 가정 돕기 위한 Bones Love Milk 캠페인 추진-스케이트보드 매니아 영화배우 출연 온라인으로...연초까지 25만 명에게 우유와 식사 제공 목표’,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2월 29일자

- 원문출처: perishablenews.com, 12월 18일

2. (2020년 12월 31일) 美 우유소비, 코로나 덕분에 10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버터 6% 급증, 치즈는 피자소비 증가로 모짜렐라 늘어

코로나19로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미국내 주요 유제품 소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터 소비가 크게 늘었고, 흰 우유도 10년 만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버터의 경우, 음식수요가 많은 11월과 12월에 판매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나, USDA에 따르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중 5개월 만에 작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버터재고는 거의 바닥상태이고, 내년 1월까지 전년 재고수준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미국 낙농업계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을 빠르게 늘려 올해 버터 생산은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흰 우유 소비도 10년 만에 늘어 이러한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유 판매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로 소비자들이 집에 머무른 시점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USDA에 의하면, 4월과 5월 큰 증가를 보인 이후, 전년 대비 증가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길고 강했던 우유소비 감소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치즈 소비는 혼조세를 보였다. 모짜렐라의 경우는 피자 판매가 늘면서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햄버거에 흔히 사용되는 가공치즈는 대유행 초기 소비가 크게 감소해 목장에서 우유를 버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소비동향] 美 우유소비, 코로나 덕분에 10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 버터 6% 급증, 치즈는 피자소비 증가로 모짜렐라 늘어’,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2월 3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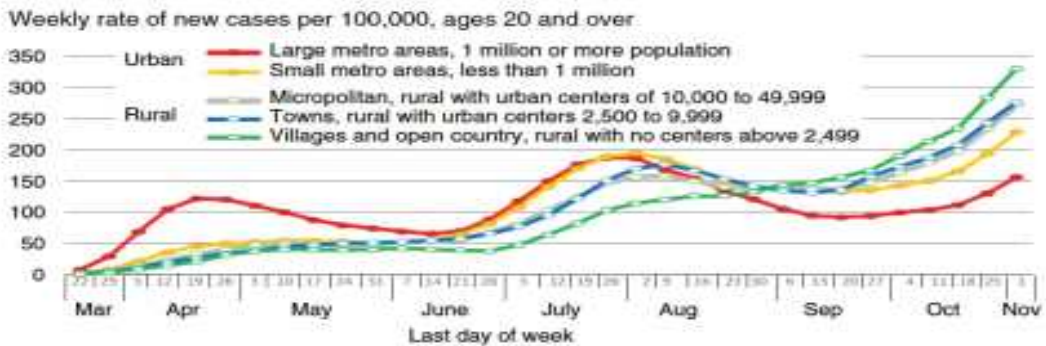
- 원문출처: wpr.org, 12월 24일

3. (2021년 1월 18일) 미국 농촌과 도시의 코로나19 영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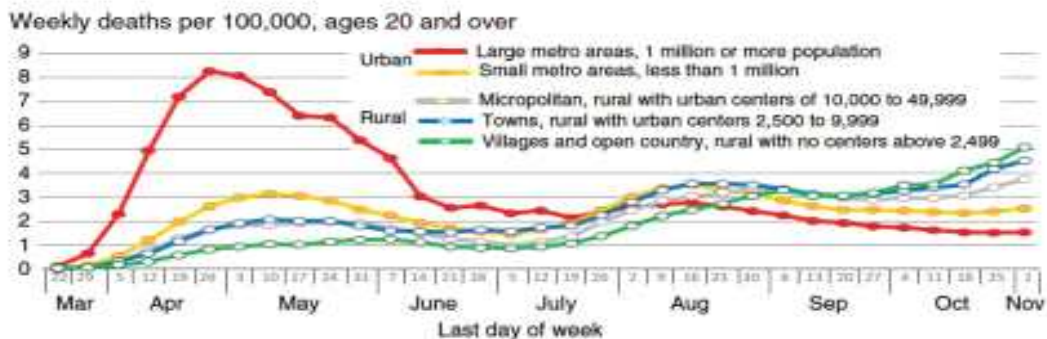
2020년 11월 1일 기준, 미국 전체 성인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농촌 지역은 코로

나 전체 확진자의 14%, 사망자의 11%를 차지하지만, 2020년 10월 마지막 3주 동안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급증하였다. 2020년 10월, 농촌 지역은 전체 확진자의 21%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사망자의 27%를 차지한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농촌 지역의 높은 평균 연령, 낮은 의료 접근성과 의료 보험 가입률 등이다.

도시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2019년 겨울부터 2020년 1분기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안정기에 접어든 반면, 농촌 지역의 경우 2020년 9월 이후 새로운 확진자와 사망자 발생이 집중되었다. 대도시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반 확진과 사망 발생이 집중된 후, 의료 시스템 향상과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축적이 이루어져 차츰 대응력을 기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부터 증가한 두 번째 폭증의 경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확진과 사망 모두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고르게 발생하였다. 두 번째 폭증은 첫 번째 폭증에 비해 확진자 수는 높지만, 사망자 수는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 검사의 확대와 코로나 진료 시스템의 향상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0월부터 나타나는 세 번째 폭증의 경우 성인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은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에서 훨씬 높으며, 주간 사망자 수 역시 농촌 지역에서는 100명의 확진자당 2명으로 도시 지역에서의 1.4명보다 약 40% 정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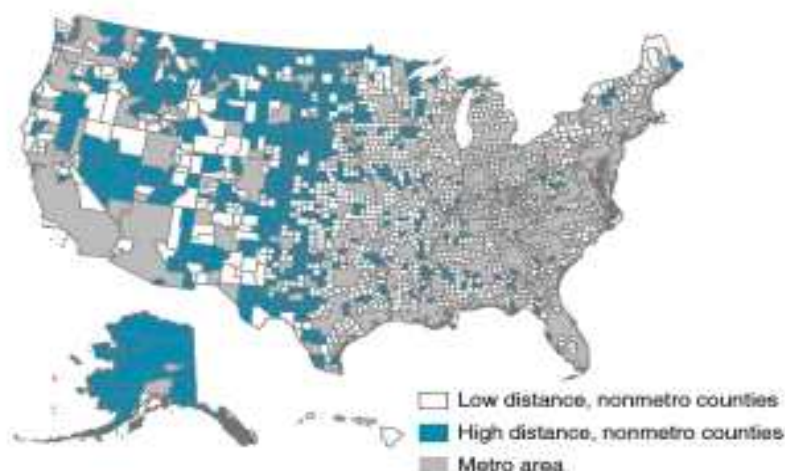
Note: The graph presents weekly rates, averaged over the 3 weeks preceding the dates at the bottom, consistent with the accompanying chart of COVID-19 death rates. Micropolitan includes adjacent rural counties when inter-county commuting is substantial.
Source: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using data from Johns Hopkins University, replacing missing information with data from the New York Times, Covid in the U.S. dataset.



Note: The graph presents weekly rates, averaged over the 3 weeks preceding the dates at the bottom, consistent with the accompanying chart of COVID-19 case rates. Micropolitan includes adjacent rural counties when inter-county commuting is substantial.
Source: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using data from Johns Hopkins University, replacing missing information with data from the New York Times, Covid in the U.S. dataset.

미국질병본부(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농촌 지역에서 코로나19 상황 악화의 원인으로 1) 높은 평균 나이, 2) 낮은 의료 접근성과 의료 보험 가입률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2017년 기준, 미국 전체 카운티 중 4%는 의료 시설이 전무하며, 이들 중 97%는 인구 2천 5백 명 미만의 농촌 지역이다. 전체 카운티 중 집중치료시설(Intensive Care Unit, ICU)을 갖춘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는 60%에 불과하다. 미국 전체 카운티 중 22%의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운전을 해야 하는데, 특히,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코로나19의 경우 농촌 지역 주민들은 집중치료시설에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기 힘든 상황이다. 아래 그림에서 High Distance county의 경우 집중치료시설을 갖춘 병원까지 약 32.4mi(51.2km)을 운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Nonmetro counties in the upper quintile of distance to a hospital with an ICU, 2017



Note: Counties are considered high distance if they are at least 32.4 miles from the county with an intensive care unit in their healthcare service area. This is the cutoff for the 20 percent of counties with the largest distances as the crow flies, measured between population centers.

Source: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calculations in ArcGIS using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0 Decennial Census Geographic Reference Files and Kaiser News Foundation calculations from the 2015-19 Healthcare Cost Report Information System (HC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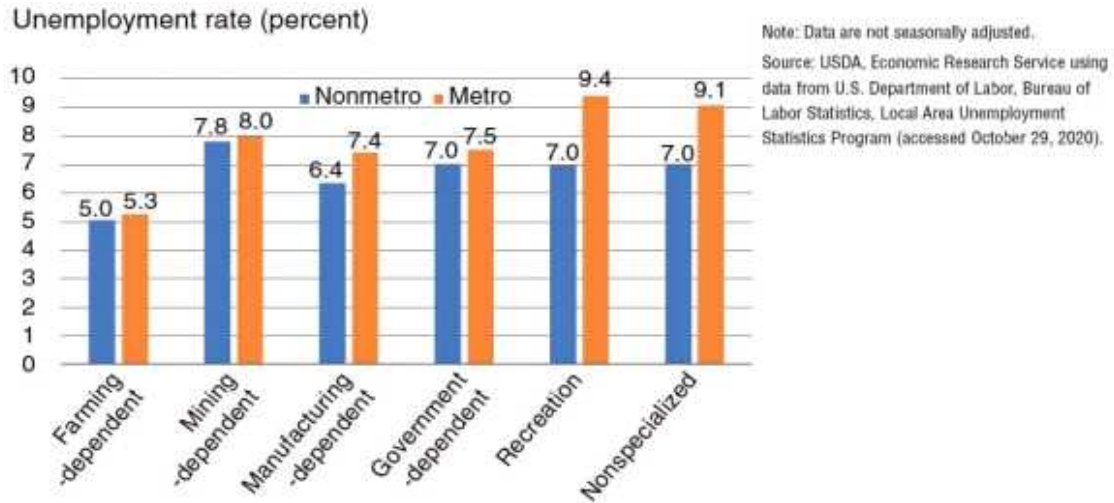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실업률은 1930년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농촌 지역의 실업률은 2020년 3월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0년 4월 중순 13.6%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0부터 2019년까지 농촌 지역의 실업률은 도시 지역보다 약간 높았지만, 코로나19 기간에는 오히려 1% 정도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코로나19 초반 도시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영향 외에도,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필수적인 산업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결과로 추측된다.

2020년 9월 12일 기준, 실업률은 도시 지역에서는 7.9%, 농촌 지역에서는 6.0%로 하락하였다. 연방 및 주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일부 주의 제한적 경제 재개 및 소비자들의 구매 활동 증가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실업률의 경우 주 및 카운티 별로 주요 산업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2020년 8월 농촌 지역 실업률을 살펴보면, 광산이 주요 산업인 카운티에서 7.8%, 농업이 주요 산업인 카운티에서는 5.0%로 나타났다. 농업 취업자 수의 경우 2020년 2월부

터 4월까지 1.2%만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기간 농촌 지역의 낮은 실업률을 설명해 준다.



미국 전역에서 축산 가공시설 고용 인구는 50만 명으로, 대부분의 가공시설은 사우스다코타 주의 수 폴스(Sioux Falls, SD)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 외 네브라스카 주의 다코타 시티(Dakota City, NE)와 미네소타 주의 워딩턴(Worthington, MN) 지역이 주 산업이다. 축산 가공산업은 약 56개 카운티(49개의 농촌 지역 카운티, 7개의 도시 지역 카운티)에서 20% 이상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2020년 4월 중순부터 축산 가공시설이 주 산업인 카운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다른 카운티에서보다 더욱 빠르게 발생하였다. 해당 기간 축산 가공시설이 주 산업인 카운티의 경우 하루 확진자는 10만 명당 50명으로 다른 농촌 지역 카운티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20년 5월 이후 축산 가공시설 운영 중단으로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해졌으나 여전히 다른 농촌 지역 카운티보다 7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촌과 도시의 코로나19 영향 비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2(2021년 1월 18일)

- 원문출처: 미국 농무부(ERS, USDA), ‘Rural America at a Glance: 2020’ (2020.12.)(<https://www.ers.usda.gov/publications/pub-details/?pubid=100088>)

[멕시코]

1. (2021년 1월 25일) 멕시코, 코로나19 등에 의한 경제악화로 미국 유제품 수출에도 영향. 지난해 11월 유제품 누적 수출량 2019년 대비 16% 감소

미국의 최대 유제품 수출 시장인 멕시코의 경기침체로 미국 유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컨설팅 업체 콰터라(Quarterra)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악화로 소비자들의 유제품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11월 멕시코의 미국산 유제품 누적 수입량이 2019년 동기 대비 1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대비 9% 감소하며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3/4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여전히 2019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실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유제품 소비와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난해 미국산 치즈 수입량은 2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현재 멕시코의 원유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함에 따라 유제품 수입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미국의 원유 생산량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금년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교역동향] 멕시코 경제악화로 미국 유제품 수출에도 영향 - 지난해 11월 유제품 누적 수출량 2019년 대비 16% 감소’,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1월 25일자
- 원문출처: dairyherd.com, 1월 18일

II. 남미

[아르헨티나]

1. (2020년 12월 31일) 아르헨티나,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식량 공급 보장 위해 옥수수 수출 중단. 러시아도 2020년 12월 곡물 수출할당제와 밀 수출세 발표

아르헨티나는 2021년 2월 28일까지 수출용 옥수수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수요일 농업부가 발표하면서, 충분한 국내 식량 공급을 보장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이 놀라운 조치를 발표했다. 세계 3위의 옥수수 공급국의 움직임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글로벌 식량 공급을 강화하려는 신호였다.

“이 결정은 옥수수가 생산 비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 소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그것을 사용하는 부문에 대한 곡물 공급을 보장할 필요성에 기초하고 있다” 고 성명서는 말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식량 가격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전염병 기간 동안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저소득 가정들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다. 구매자들은 여전히 아르헨티나에서 온 옥수수를 예약할 수 있지만, 3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선적 날짜에만 예약할 수 있다.

러시아는 Vladimir Putin 대통령이 식량가격 인상을 비판함에 따라 이달 곡물 수출할 당제와 밀 수출세를 발표했다. 그리고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브라질은 대두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을 수입했다. 아르헨티나의 발표 이후 시카고 선물 거래소 선물가격은 6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미의 곡물 강국은 또한 세계 최고의 대두박 가축 사료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대두와 밀의 주요 공급국이다. “현재까지, 수출 가능한 총 3,850만 톤 중에서, 2019/20년 시즌의 3,423만 톤의 옥수수가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라고 성명서는 밝혔다.

“이 조치의 목적은 곡물 공급이 부족한 여름철 동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나머지 427만 톤은 국내 소비용으로 남아 있다.” 라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유통망에서 농민들과 업자들 또한 전통적으로 이런 유형의 시장 개입에 반대한다.

아르헨티나의 MAIZAR 옥수수 산업 협회 책임자인 Alberto Morelli는 “우리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아르헨티나에는 옥수수가 부족했던 적이 없었다.” 라고 말했다. 10만 9,000명 이상의 농업 생산자들을 대표하는 Confederaciones Rurales Argentinas (CRA)는 그 결정에 “놀라웠다” 고 말했고, 그것은 먼저 협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우리 모두는 수출 중단이 끔찍한 조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외화도 국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있다” 라고 밝혔다. 농산물의 국제적 판매는 폐소를 안정시키고 코로나바이러스 구호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 달러 원천이다.

아르헨티나 농부들은 현재 2020/21년 시즌을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다. 로사리오 곡물 거래소에서는 4월에 수확이 시작되면 4,800만 톤의 농작물이 수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곡창지대에 사는 농부인 Santiago del Solar는 수출 중단은 기업의 신뢰를 해칠 “말도 안 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del Solar는 “신뢰도가 낮으면 생산량이 줄어든다. 우리는 국내 유통에 공급할 충분한 옥수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농부들을 짜증나게 할 것이다. 다음은 밀입니까?” 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a suspends corn exports to ensure domestic food supplies(아르헨티나는 국내 식량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옥수수 수출 중단),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2월 31일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90/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2. (2021년 1월 4일)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동안 일한 조합원들에 대한 급여 인상과 특별 보너스를 원하는 아르헨티나 곡물 검사관, 주말에도 계속 파업

아르헨티나 곡물검사노조 Urgara는 목요일 민간 항만 상공회의소(CPPC)와의 두 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 타결에 실패한 뒤 주말에도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아르헨티나의 대두 분쇄 회사들이 화요일 밤 오일시드 노조와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9일 근로자들이 퇴사한 이후 선박의 하역 지연과 대두 분쇄가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Urgara는 성명에서 “다음 주 월요일 우리는 CPPC와 새로운 회의를 가질 것이며 우리는 외환 수입과 국가의 경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내내 방관했던 노동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노조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동안 일한 조합원들에 대한 급여 인상과 특별 보너스를 원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Urgara의 파업은 아르헨티나의 남부 항구인 바이아 블랑카, 네코체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의 농산물의 80%를 취급하는 로사리오의 북쪽 항구 중심지에서 운영하는 회사들이 Urgara와 관련이 없는 곡물 수령자를 고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고의 대두박 수출국이며 주요 국제 대두, 밀, 옥수수 공급국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a grain inspectors continue strike over weekend (아르헨티나 곡물 검사관, 주말에도 계속 파업),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1월 4일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94/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Ⅲ. 유럽

[EU]

1. (2020년 11월 24일) 코로나 위기, 부흥 패키지로서 생산자 등에 대한 80억 7천만 유로(약 1조 168억 엔, 10조 8,175억 6,062만 원) 지원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EU)이사회(각료 이사회)는 11월 10일 생산자, 식품 관계 사업자, 농촌 지역의 코로나 위기에서 회복력을 높이기 때문에 총 80억 7,000만 유로(1조 168억 엔, 10조 8,175억 6,062만 원: 1유로=126엔=1,340.47원)의 부흥 패키지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유럽 의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당초 유럽 위원회가 제안했던 2022~24년 실시 기간은 2021~22년에 조기 집행됐다. 또 EU의 부흥 기금에서 지출되는 총액 가운데 약 30%가 2021년, 나머지 70%가 2022년에 충당될 예정이다.

유럽 의회는 각료 이사회와 협상 중에 유기 생산자와 환경, 기후 변화, 동물 복지 대응에 충당하기 위해서 37% 이상, 젊은 농업인의 창업과 농장의 투자(위기에 대한 회복력, 지속 가능성 및 디지털화)에 55% 이상의 자금을 겨우 확보하고 환경에 배려한 생산에 대한 지원 비율은 현 상태를 밀돌지 말라고 하고 있다.

또 생산자와 식품 사업자가 요건을 충족시키는 투자할 경우 지원 상한은 발생하는 비용의 75%에 오르면서 젊은 농업인의 창업 지원 상한액도 7만 유로(882만 엔)에서 10만 유로(1,260만 엔)로 격상됐다. 자금은 모두 EU에서 제공되고 각국의 부담이 없다.

또 실현을 위한 정식 합의에는 2021년 1월 하루의 차기 공통 농업 정책 발효 전 유럽 의회 및 EU이사회에서 관련 규칙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출처)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関連の情報’, 「畜産の情報」, 2021년 1월호

- 원문출처: 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473.html

2. (2021년 1월 20일) 유럽연합 밀, 7년 반 만에 최고치 근처에서 중단,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러시아 수출세 계획 주시

유로넥스트 밀은 러시아 수출세가 세계 밀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추가 지표를 기다리면서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마감했다. 파리에 본사를 둔 유로넥스트의 3월 제분밀 BL2H1은 이날 톤당 235.75유로(285.75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러시아가 제안한 수출세는 식량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의 수출 가격과 유럽연합 및 미국 밀과 같은 다른 원산지의 가격을 모두 인상했다. 한 독일 무역업자는 “알제리는 수요일에 밀을 입찰하고, 터키는 금요일 40만 톤의 대규모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 후반에는 아시아에서 더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 고 말했다.

러시아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톤당 50유로의 밀 수출세를 부과하고, 2월 15일부터 적용될 25유로의 초기 부과금을 인상하고, 다음 시즌에도 부과금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업자들은 아르헨티나의 밀 수출 제한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2020/21년 남은 시즌에 대한 수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1달러=0.8250유로)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wheat pauses near 7-1/2-year high, Russian export tax plan eyed(유럽연합 밀, 7년 반 만에 최고치 근처에서 중단, 러시아 수출세 계획 주시)’,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1월 20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743/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영국]

1. (2021년 1월 6일) 英 낙농가, 목장내 우유 자판기 설치로 큰 호응 - 하루 평균 100여명 소비자 방문...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판로 개척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변종 바이러스까지 출현하면서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가운데, 우유 자판기가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잉글랜드 지역의 한 농가는 인근 소비자들에게 직접 우유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우유 자판기로 저온 살균우유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우유 자판기는 일주일 내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다양한 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고려해 직접 밀크셰이크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초콜릿, 딸기 등 12종류의 시럽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현재 이 목장에는 하루 평균 100여명의 소비자들이 방문해 우유를 구입하며 농가에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일즈 지역의 또 다른 농가는 24시간 운영되는 자판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에 우유 밀크셰이크, 핫초코를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자판기는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시설 관리가 필요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영국에서 코로나 이후 우유 자판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비대면 시대에 새로운 판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마케팅] 英 낙농가, 목장내 우유 자판기 설치로 큰 호응 - 하루 평균 100여명 소비자 방문...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판로 개척’,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1월 6일자
- 원문출처: dailymail.co.uk, 1월 4일

[아일랜드]

1. (2020년 12월 30일) 아일랜드, 2020년 코로나19 불구 원유가격 비교적 안정, 내년 수출 호조 기대 - 원유가격은 여전히 낮아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 과제로 남아

아일랜드 낙농산업이 올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돼,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유가격은 여전히 낮아 목장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일랜드의 농업뉴스 전문채널인 Agriland가 낙농생산자연합(ICMSA) 회장인 팻 맥코맥과 올해 원유생산 및 목장경영과 내년 전망에 대해 대담을 나눴는데,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

원유가격 큰 하락 없어 목장경영 안정세 유지.

“올해 상반기 첫 번째 봉쇄조치가 발표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원유가격 폭락을 우려했으나, 다행히 원유가격은 1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또한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초지상황이 좋아, 생산비가 절감돼 많은 도움이 됐다. 다만, 낙농가들에 의하면 원유가격이 20-30년 전과 비슷해, 목장경영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생산비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환경적 지속가능성도 요구받고 있어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

내년 원유생산 1.6%-1.7% 증가 전망.

“매년 원유생산이 1.6-1.7% 씩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시장이 안정돼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쟁국인 뉴질랜드가 환경적, 제도적, 경제적 제약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 유제품 수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생산-경영] 아일랜드, 내년 수출 호조 기대 - 원유가격은 여전히 낮아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 과제로 남아’,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2월 30일자

- 원문출처: agriland.ie, 12월 26일

[폴란드]

1. (2020년 12월 30일) 코로나로 인한 봉쇄 기간 낮은 육류가격으로 사료공장 수요 줄어 판매 어려움 겪고 있는 폴란드, 대규모 수출품 선적 이후 수출 낙관론 계속

유럽산 밀이 화요일 상승했는데, 이는 유럽에서 조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알제리의 입찰과 미국 시장에서의 반등에 힘입은 것이다. 유로넥스트의 3월 기준 제분밀 BL2H1은 톤당 0.5% 상승한 212.00유로(259.70달러)를 기록했다.

알제리는 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두 기간에 걸쳐 밀을 생산하기 위한 선택적 원산지 입찰을 월요일 시작했다. 남미에서 조달될 경우, 배

송은 1월 1일~15일, 1월 16일~31일까지이다. 한 무역업자는 “유럽 밀이 흑해와 아르헨티나보다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요 원산지가 될 것 같다” 라고 말했다.

11월 13일에 마지막으로 보고된 입찰에서, OAIC는 유럽연합이 주요 공급원으로 약 60만 톤의 선택적 원산지 밀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폴란드의 대규모 수출품 선적 이후 수출 낙관론이 계속되었다. 한 폴란드 무역업자는 “대규모 수출업자들은 조용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밀 구매를 활발하게 했다” 라고 말했다. “농부들은 소규모 상인들과 함께 상점을 닫았다. 사료 공장이나 제분소 같은 가공업체는 인근 공급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낮은 육류 가격 문제로 인해 사료 공장 등의 수요가 줄어 제품 판매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폴란드의 12.5% 단백질 밀 수출가격은 지난 주 톤당 20달러 상승하여 1월 항구에 인도되며, 환율 변동과 유로넥스트의 강세에 힘입어 톤당 약 925달러(205.4유로)를 기록했다.

무역업자들은 11월과 12월에 폴란드에서 북아프리카 국가로 밀을 반복적으로 선적한 알제리의 새로운 밀 매입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 무역업자는 “폴란드 제분밀은 여전히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라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wheat firm, supported by Algeria tender and U.S. markets(알제리 입찰 및 미국 시장의 지원을 받으며 유럽연합 밀 상승)’,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2월 30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87/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러시아]

1. (2020년 12월 31일) 유럽연합 밀은 러시아의 2월 15일 수출세 부과 조치를 앞두고 러시아 밀 가격 고가 유지, 시카고밀 시장가격 급등, 2년 만에 최고치 기록

유럽산 밀 가격은 거의 변하지 않고, 시카고에서 급등한 이후 수요일 거래에서 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유로넥스트의 3월 제분밀 BL2H1은 톤당 214.50유로를 기록한 후 0.9% 상승한 214.00유로에 마감했다. 한 무역업자는 “연말 전날입니다. 일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유로넥스트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요일 마감된 알제리의 밀 입찰에도 관심이 쏠렸다. 무역업자들은 알제리가 밀을 구입하기 위한 최근의 입찰에서 아직 어떤 것도 구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알제리는 1톤당 약 288달러의 비용과 화물을 제공하고 있다. 무역업자들은 올해 알제리의 입

찰 규격 변경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산 밀이 입찰에서 모든 구매를 공급할 것으로 낙관했다.

한 독일 무역업자는 “러시아 밀 가격은 2월 15일 러시아 곡물 수출세를 앞두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세를 앞두고 몇 주 동안 수출시장에서 값싼 러시아산 밀이 쏟아져 나올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알제리는 러시아 수출세가 시행될 예정인 것처럼 선적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유럽연합산 밀이 알제리의 구매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U wheat at 2-year high in the wake of a surge in Chicago(유럽연합 밀은 시카고의 급등으로 2년 만에 최고치 기록)’,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0년 12월 31일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690/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우크라이나]

1. (2021년 1월 20일) 러시아의 곡물 수출세 인상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 옥수수 수출 제한 요구에 대해 무역업자들은 반대

우크라이나의 곡물 거래상들은 화요일 식량 가격 인상을 피하기 위해 동물 사료와 육류 생산업자들이 요청한 2020/21 시즌 옥수수 수출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처와 농업노조는 2020/21 시즌 옥수수 수출을 2,200만 톤으로 제한할지를 1월 25일에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주 자국내 축산 및 가금류 생산자 협회는 동물 사료 부족을 피하기 위해 옥수수 수출을 그 수준으로 제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 무역업자는 수출제한 조치가 러시아의 수출세 결정으로 인해 “시장에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촉발된 국내 식료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밀에 대해 수출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raders oppose call to limit corn exports from Ukraine (무역업자들은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수출 제한 요구에 반대)’,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1월 20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743/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IV.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1. (2021년 1월 11일) 금년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 5% 감소 전망, -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과 세계 유제품 가격 약세가 주요인

올해 세계 최대 유제품 수출국인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량이 전년대비 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뉴질랜드 1차산업부가 발표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세계 유제품 가격이 약세를 보이며, 주요 수출품목인 버터 치즈와 분유의 수출 감소로 전체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품목별로 전지와 탈지분유가 각각 7%, 1% 감소하고 치즈는 8%, 특히 버터와 크림 수출량은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카세인 단백질(+8%)과 초고온살균(UHT) 20%, 우유, 아이스크림, 요거트 제품(15%)의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최근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일부 국가의 뉴질랜드산 유제품 수입이 주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5일 실시된 올해 첫 세계유제품경매(GDT)에서 유제품 가격이 전장대비 3.7% 상승함에 따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금년 뉴질랜드 유제품 수출 5% 감소 전망-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과 세계 유제품 가격 약세가 주요인’,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1월 11일자

- 원문출처: farmersjournal.ie, 1월 5일

2. (2021년 1월 12일) 아르헨티나 농부들 긴 불황·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속 국내 식품 가격 통제 위한 새로운 옥수수 수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판매 파업 계속

아르헨티나 농민들은 월요일 판매 파업을 촉발시킨 옥수수 수출 중단을 수정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곡물 판매 금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개월간의 수출 중단 조치를 국제 시장에 팔 수 있는 일일 3만 톤의 임시 수출 제한으로 대체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장 단체들은 새로운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농촌협회(SRA) 회장 Daniel Pelegrina은 “SRA은 판매 금지를 계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농촌 연맹(CRA)도 판매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CRA는 “이러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규칙을 바꾸고 재배 농가의 신뢰를 떨어뜨려 다음 시즌 파종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시킨다.” 라고 말했다.

재배 농가들의 파업이 시작되었을 때 농업부가 자정에 발표한 하루 3만 톤의 수출 상한선은 3월까지 세계 3위 공급국의 국제 옥수수 수출을 중단하려는 정부의 이전 계획을 대체한다. 원래의 정책은 지난 12월 30일에 발표되었다.

정부는 긴 불황과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속에서 국내 식품 가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농업부는 옥수수 수출에 대한 새로운 3만 톤의 일일 한도가 국내 공급을 보장하고 국제 시장의 가격 변동에 대한 국내 가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에서 대두 및 옥수수 재배자인 David Hughes은 “곡물 화물선은 적재당 최대 4만 5천 톤까지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만 톤을 수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라고 말했다. 농업부 수출 자료에 따르면, 2019/20년 옥수수 판매량은 113만 톤으로 1월과 2월에 수출될 것이다. 2020년 상반기 출하 예정인 2018/19년 시즌 옥수수 재고량은 277만 톤이었다. Hughes는 “다른 농부들 또한 아르헨티나는 옥수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아르헨티나의 기말재고량은 지난 몇 년간 보다 훨씬 더 많다” 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rgentine farmers continue sales strike despite new corn export policy(아르헨티나 농부들은 새로운 옥수수 수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판매 파업 계속)’, 「해외곡물시장정보-해외곡물시장 뉴스/브리핑」 2021년 1월 12일자(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720/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V. 아시아

[아세안]

1. (2020년 12월) Kotra,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보고서 발표

<요약>

□ **아세안 소비재 시장동향**

- 코로나19 발생이후 성장세 감소했지만 이커머스 중심으로 아세안 소비재 시장은 빠른 회복세 보일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 이후 주목할만한 소비트렌드**

- 온라인 쇼핑의 대중화
- 소매유통시장, 오프라인/온라인의 통합 옴니채널로의 전환
- 가격, 품질 외 소비자 구매 결정요인 다양화
- 온라인 음식 배달사업의 성장
- 현금없는 사회(전자결제 플랫폼 활용 증가)
- 일상 생활용품 및 식품 수요 증가
-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이용증가

□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선도하는 현지 대표기업 사례**

- Grab / Lazada / HappyFresh / Tokopedia / Foodpanda

□ **포스트 코로나시대 부상하는 유망 소비재 품목**

- 마스크 / 위생용품 / 정수기 / 주방용품 / 즉석식품 / 피부관리용품 / 건강보조식품 / 컴퓨터 / 게임소프트웨어 / 라면 / 스포츠의류 및 용품 / 한국음식

□ **우리기업 대응전략**

- 편집샵·플래그십 스토어 운영으로 현대적이고 편리한 경험 제공
- 원산지 표기, 식품 및 제품 안전에 유의
- 지역 생산자 보호 및 친환경 제품 생산 이미지 확립
- 옴니채널 구축 및 CS인력 확보
- 자국산 우선구매 움직임을 고려하여 현지 로컬업체와 협업 추진
- 소비자와 소통 확대로 팬더믹 혼란속 신뢰성 확보
- 물품 수출前 수입 규제(인·허가, 관세 등) 확인
- 현지 문화 및 트렌드에 맞는 현지화 마케팅 전략 수립
- 장기적인 보상(포인트 적립)보다 즉각적인 보상(할인쿠폰)이 효과적

(출처) Kotra,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Global Market Report 20-038, 2020년 12월

[중국]

1. (2020년 12월 28일) 중국, 연간 3,500만 kg의 “소비 전” 곡물 손실 예상.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위협 증가에 대응 식품보안법 초안 앞당길 것

세계 최고의 곡물 소비국인 중국이 저장, 운송, 가공 단계에서 매년 350억 kg 이상의 곡물을 잃고 있다고 국영 신화통신이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National People's Congress; NP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 전 막대한 손실은 오래된 저장시설, 물류장비, 가공기술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곡물의 손실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식량 안보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NPC 보고서는 소비 전 단계에서 곡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수확기와 스마트 곡물창고를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고 신화통신은 말했다. 이 연구는 또한 도시의 음식 공급 산업에서 연간 최대 180억 kg의 음식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신화통신은 말했다.

Xi Jinping 주석은 지난 8월 식량 낭비는 부끄럽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게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 의식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많은 지방 정부들이 뷔페 낭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중국은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시기에 나타난 위협 증가에 대응해 식품보안법(Food Security Law)의 초안을 앞당길 것이라고 중국 관리가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곡물 생산량은 6억 6,949만 톤으로 증가했고, 총 곡물 재배 면적은 1억 1,680만 ha로 증가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hina sees over 35 bln kg of annual “pre-consumption” grain loss(중국, 연간 3,500만 kg의 “소비 전” 곡물 손실 예상)’,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 및 브리핑, 2020년 12월 28일자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베트남]

1. (2020년 12월) 2020년 2분기 기준, 베트남 소비자신뢰지수(CCI) 세계 2위

- 베트남은 2020년 2분기 기준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 CCI)에서 117점을 획득하여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성공적 방역 대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경제 성장률(3분기 기준 2.12% 성장)을 나타내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계 소비자신뢰지수(CCI) 상위 8위국가>



자료원 : The Conference Board (2020년 2분기),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출처) Kotra,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Global Market Report 20-038, 2020년 12월

[인도네시아]

1. (2020년 12월) 전자제품, 식음료 제품 중심으로 소비재 시장 지속 성장

○ 인도네시아 소비재 시장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Statista에 따르면 소비재 시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9.61%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과 식음료 분야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전자제품 시장은 전년 대비 38%, 식음료 시장은 65%의 성장이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면서 원활한 재택근무를 위해 전자제품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외식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식음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소비재 시장 현황>

(단위 : 1백만 달러)

소비재 구분	2017	2018	2019	2020	연 평균 성장률 ('17~'20)
전자제품	1,658	2,738	3,984	5,504	49.18%
식음료	476.8	808	1,205	1,988	60.95%
화장품	6,189	6,534	6,900	7,095	4.66%
가정용품	5,353	5,505	5,654	5,621	1.64%
일반의약품	2,498	2,610	2,731	2,861	4.63%
위생용품	7,223	7,469	7,716	7,746	2.36%
총합	23,398	25,664	28,190	30,815	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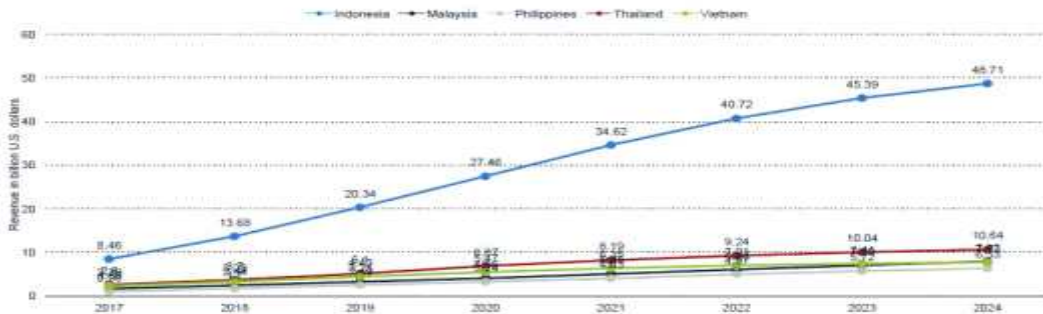
자료원 : Statista

□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에 따라 소비재 시장 성장 가속화 예상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4년 약 20조 루피아 규모에서 2019년 약 267조

루피아로 1,235% 성장(Euromonitor)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에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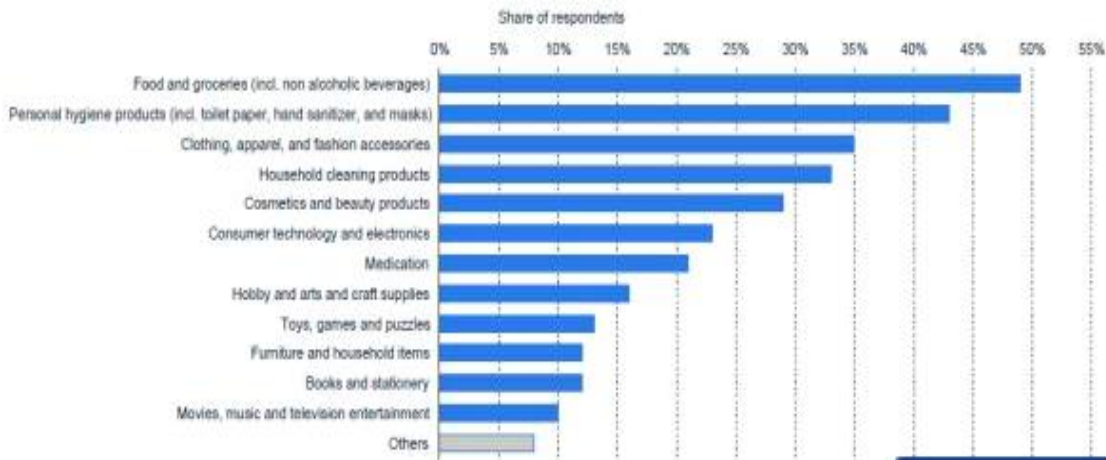
<아세안 5개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예측치 포함)>



자료원 : Statista

-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주거래 품목인 소비재 시장의 지속 성장 예상
-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은 식음료, 개인 위생용품, 의류·악세서리, 가정용품, 개인 가전제품 등이다.

<전자상거래 주 구입 품목 설문조사 결과>



자료원 : Statista

(출처) Kotra,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Global Market Report 20-038, 2020년 12월

[싱가포르]

1. (2020년 12월) 코로나19로 생필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사치품 등 비필수재 수요는 외국인 관광객 제한 및 소득여건 악화로 더딘 회복 전망

생활필수품 수요 증가로, 슈퍼마켓·하이퍼마켓(28.6%), 편의점(3.8%), 컴퓨터·통신기기(27.4%), 가구·가정용품(9.6%)의 소매판매 지수 전년 동기대비 상승

* 반면 백화점을 비롯한 음식 및 주류, 패션, 주얼리, 자동차 등 그 외 업종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리 수대의 하락률을 기록.

싱가포르 2020년 7월 소매판매지수(RSI)

업종	전년동기비(%)	전월대비(%)
슈퍼마켓 및 하이퍼마켓	28.6	△9.8
컴퓨터 및 통신기기	27.4	6.0
가구 및 가정용품	9.6	36.2
미니마트 및 편의점	3.8	△4.8
백화점	△32.1	109.4
음식 및 주류	△42.9	2.6
차량	△12.8	100.3
의류 및 신발	△27.7	82.7
시계 및 주얼리	△21.0	66.3
전체	△8.5	27.4

주 : 2020년 9월 기준 최신자료
 자료원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 성장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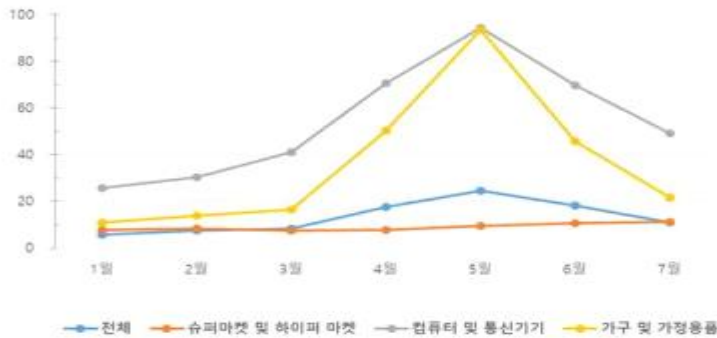
○ 서킷브레이커로 외출 자제된 5월, 전체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판매 비중이 2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 달성

* 2020년 소매업 온라인 판매비중 변동추이 : (1월)6%→(5월)24%→(7월)11%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체	5.8	7.4	8.5	17.8	24.5	18.1	11.0
슈퍼마켓·하이퍼마켓	7.8	8.5	7.5	7.7	9.6	10.7	11.4
컴퓨터·통신기기	25.9	30.4	41.2	70.6	94.3	69.9	49.1
가구 및 가정용품	10.9	14.0	16.5	50.4	93.6	45.6	21.8

자료원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싱가포르 2020년 소매업 온라인판매 비중(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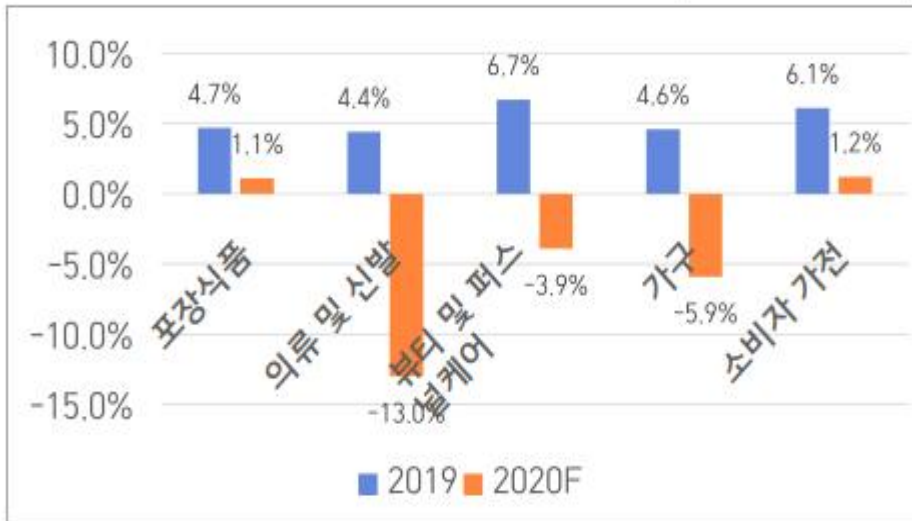
주 : 2020년 9월 기준 최신자료
 자료원 : KOTRA 싱가포르무역관

(출처) Kotra,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Global Market Report 20-038, 2020년 12월

[태국]

1. (2020년 12월)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 및 유통망 운영 제한으로 성장이 둔화됐지만, 2021년 회복세 예상

<태국 주요 소비재 품목 성장률 및 전망(2019~2020년)>



자료원 : KOTRA 방콕무역관

- 포장식품과 가전제품은 2020년 중에도 이용의 편리함과 더불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증가세 나타내었다.
- (화장품) 태국 화장품 시장은 2014~2019년 사이 연평균 7.0%의 높은 성장률 기록했으나 코로나19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락다운 기간 중 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이 폐쇄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이례적으로 시장규모가 약 3.9% 축소되었다. 색조 화장, 네일케어, 립케어의 매출이 감소한 반면, 페이스 마스크는 장시간 실내에 머무는 소비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뷰티케어 수단으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 (포장식품) 시장규모가 2019년 기준 전년대비 4.7% 증가한 4,525억 바트(145.7억 달러)으로 아세안 최대 규모이다. 1인 가구 증가, 디저트 문화의 발달, 편의점 증가에 따라 가공식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유기농 가공식품 섭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출처) Kotra,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Global Market Report 20-038, 2020년 12월

[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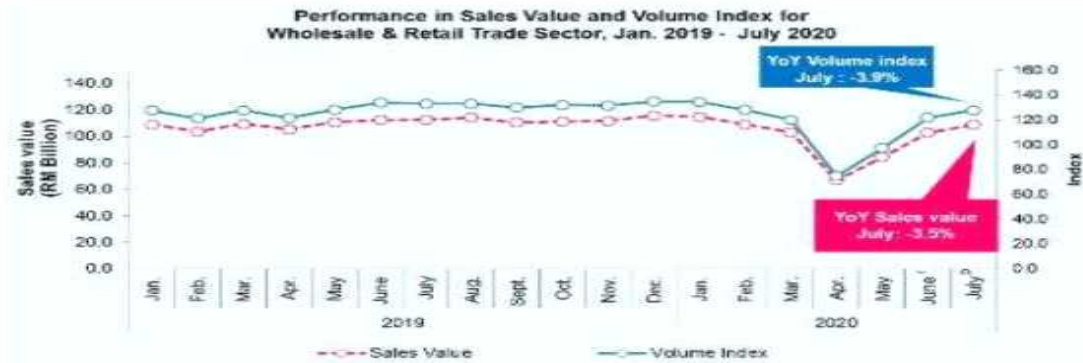
1. (2020년 12월) 코로나19로 수요 감소 및 물가 하락

- 말레이시아는 3월 코로나19 역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5월 초까지 전면적인 국가봉쇄(MCO)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2분기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은 $\Delta 17.1\%$ 를 기록하고, 실업률이 5.3%(전년 3.3%)까지 상승하였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3~5월간 실시된 국가봉쇄기간 중 최대 90%에 이르는 매출 감소와 109억 링깃(약 27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Malaysia Retail Association)된다.

□ 5월 국가봉쇄 완화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

- 국가 봉쇄는 5월 이후 완화된 국가봉쇄(CMCO)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규제가 해제되었고, 감염자 수가 감소하여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 2020년 7월 말레이시아 도소매 소비재 시장규모는 1,087억 링깃(약 271억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지만 매출 규모 지수는 전년대비 3.9% 감소로 전월의 $\Delta 8.9\%$ 에 비해 하락폭이 완화되었다.

< 2019-20년 도소매 소비재 시장규모 및 매출 추이 >



(출처) Kotra,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Global Market Report 20-038, 2020년 12월

[필리핀]

1. (2020년 12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 마이너스 성장기록

- 필리핀 경제성장률 연 6%의 버팀목이었던 소비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감
- * 소비지출 증감률 : (' 20년 1분기)0.2%→(' 20년 2분기)△10.7%
- 필리핀 정부의 완전봉쇄 조치로 사업영위에 어려움을 느낀 해외투자자들은 필리핀에 유입된 자본을 회수
- 고용이 줄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구매력 약화로 연결
- * 코로나19 사태이후 ' 20년 2분기 실업률 17.68%로 1분기 5.15%에서 크게 증가
- ** 투자지출 증감률 : (' 20년 1분기)△4.5%→(' 20년 2분기)△13.9%



- 코로나19 이후 필수품 위주로 소비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
- '20년 기준, 필리핀 소비자 총 지출 규모는 13.4조 페소로 '19년 13.8조 대비 2.7% 감소
- '17~' 19년 연평균 9.6% 성장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크게 감소
- 감소폭이 높은 항목으로는 가정/생활용품(△7.6%), 호텔/케이터링(△4.5%), 잡화 서비스(△3.8%) 등 주로 사치품
- 식품 및 비알코올 음료(△0.3%), 건강식품 및 의료서비스(△0.4%), 주택 임대 (△0.4%) 등 의식주 기반 필수품목은 현상유지
- 구매력이 약해진 소비자는 경제활동이 재기 되기 전까지 필수품 위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

<2017~2020년 품목별 소비자 지출 현황>

(단위: 10억페소)

항 목	2017	2018	2019	2020(e)	19/20 증감률
소비자 총 지출	11,583	12,840	13,834	13,469	-2.7%
식품 및 비알코올 음료	4,873	5,462	5,831	5,816	-0.3%
잡화 및 서비스	1,482	1,645	1,819	1,753	-3.8%
주택 임대	1,370	1,538	1,668	1,661	-0.4%
운송 및 교통	1,322	1,428	1,513	1,459	-3.7%
교육	482	542	588	581	-1.1%
호텔/케이터링	477	530	583	558	-4.5%
가정/생활용품	416	454	488	454	-7.6%
건강식품 및 의료서비스	344	370	404	402	-0.4%
통신서비스	321	339	363	353	-2.7%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	206	219	239	232	-3.2%
주류 및 담배	157	179	197	194	-1.5%
의류	132	133	141	136	-3.9%

* 자료원 : 유로모니터 (Euromonitor International), '20년 예상치 반영

(출처) Kotra, 「코로나19가 아세안 소비시장을 바꾼다」, Global Market Report 20-038, 2020년 12월

VI. 글로벌

1. (2020년 12월 27일) 세계경제포럼(WEF)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 발표

세계경제포럼(WEF)은 2020년에는 데이터 수집 부족과 코로나 위기대응 상황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경쟁력 평가를 발표하지 않기로 하였다. 각국의 이례적인 COVID-19 대응 조치로 인해 국가 순위발표는 하지 않았다. 대신 위기로부터의 회복과 미래경제변화에 대비한 교훈을 얻기 위해 37개국 제한된 데이터에 기반한 특별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어떤 국가가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미래경제 변화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몇몇 국가들은 공공 서비스 개선, 친환경 투자 및 디지털화를 통해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WEF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특별판은 COVID-19 위기 회복을 통해 어떻게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연구하였다. 선진화된 디지털 경제, 강력한 사회 안전망 및 탄탄한 의료체계를 갖춘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상대적으로 회복 가능한(resilient) 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경쟁력은 무엇인가?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및 미국과 같이 선진적인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재택근무 환경에서 경제를 유지하는 것에 보다 성공적이었다.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스위스와 같이 강력한 경제 안전망을 갖춘 국가는 실업자를 잘 지원할 수 있었다. 핀란드·미국·아랍 에미리트·싱가포르와 같은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는 더 쉽게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제공하여 기업 파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 스위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및 아랍 에미르를 포함한 국가는 의료·재정 및 사회 정책을 훌륭하게 계획·통합하여 코로나 여파를 성공적으로 완화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전염병(예: SARS)을 경험한 한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더 나은 프로토콜과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다.

동 위기 동안 기업 심리는 어떻게 변화하였나? (경영자 입장)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작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① 시장집중도 증가, ② 서비스 경쟁 감소, ③ 기업 간 협업 감소, ④ 고용 시장 내 숙련 노동인구 감소 등의 결과가 관찰되었으나, 변화에 대한 정부 대응 개선 및 기업 협업 향상, 벤처 캐피탈의 가용성 증가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① 범죄·폭력 관련 비즈니스 비용 증가, ② 사법 독립성 감소, ③ 경쟁 감소 및 시장 독점력 증가, ④ 정치인 신뢰 감소 등이 관찰되었으나, 역시 정부의 대응이나, 기업 내 협력 및 벤처 캐피탈의 가용성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었다.

미래의 경제 변화를 위한 필수 요건은 무엇인가?

[1. 적절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으로의 전환] 정부에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 부채관리 계획 등과 함께 디지털화를 확대할 것

[2. 인적자본 혁신]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사전 투자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노동법을 개혁하며, 새로운 인재 관리 기술의 사용을 개선할 것

[3. 시장 변화]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경쟁 및 독점 금지 프레임 워크를 업데이트할 것

[4. 혁신 생태계의 변화] R&D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장려할 것을 권장하며, 장기적으로 “미래의 시장”의 창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기업이 다양성을 포용하여 창의성과 시장 관련성을 강화하도록 동기 부여받았다.

경제 변화에 가장 적합한 국가는 어디인가?

상기 4가지 필수 요건에 수반되는 11가지 우선순위(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노동법 개혁, 장기 투자, 다양성 및 포용력 이슈 등)에 대한 국가들의 대비 정도를 조사하였다. 대비 점수(readiness scores)에서의 10% 증가가 37개국 통합 GDP에서 3천억 달러 증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투자]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을 포함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보다 친환경적이고 포괄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 예를 들면,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및 네덜란드 등이 있다.

[친환경 경제] 환경 보호에 대한 다자간 합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에너지 인프라, 운송 네트워크 및 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및 네덜란드 등이 있다.

[장기 투자] 실물 경제에 대한 직접 재정 자원의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높이면 안정성을 강화하고, 포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핀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반면 미국은 대비가 가장 잘 안되어 있는 국가 등이 있다.

[누진과세] 보다 누진적 과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경제변화의 핵심동인으로 부상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 일본, 호주 및 남아프리카는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누진세 구조 덕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확장된 공공 서비스] 사회 안전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비한 교육, 노동법 및 소득 지원을 잘 통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독일, 덴마크, 스위스, 영국, 반면 남아프리카, 인도, 그리스, 터키는 준비 부족 등이다.

[미래 시장 인센티브] 연구, 혁신 및 발명에 대한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확대하면 새로운 “미래의 시장”을 만들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핀란드, 일본, 미국, 한국, 스웨덴, 반면 그리스, 멕시코, 터키,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준비 부족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 코로나 19 동향 세계경제포럼(WEF)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 발표’,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Vol.51(2020년 12월 27일)

- 원문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세계경제포럼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 발표” (2020.12.16.)(WEF, “WEF News Release” 보도자료)

2. (2020년 12월 29일) 내년 사료가격, 10% 대 상승할 듯 - 라니냐에 따른 곡물 작황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비축 증가...올해 중국 수입급증 두드러져

세계 주요 곡물 재배지역의 장기 일기예보가 안 좋게 나오면서 2021년 곡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RaboBank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라니냐 현상으로 전 세계 밀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각국의 곡물 비축량이 늘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RaboBank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사료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내년은 밀 옥수수 콩 가격 모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최근 사료 확보 경쟁으로 영국 내 곡물가격이 오르고 있고, 오일시드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Cobank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옥수수 및 콩 가격 상승으로 내년 미국의 사료가격이 1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Cobank 관계자는 “2년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가축감소로 곡물수요가 줄었던 중국이 최근 가축이 늘면서, 2020-21년 옥수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입증가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낙농생산-사료] 내년 사료가격, 10% 대 상승할 듯 - 라니냐에 따른 곡물 작황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비축 증가...올해 중국 수입급증 두드러져’, 「글로벌 낙농뉴스」 2020년 12월 29일자

- 원문출처: dairyherd.com, 12월 14일 , fwico.uk, 11월 27일

3. (2021년 1월 4일) 2021년 세계 낙농,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에서 회복으로 “안정세 전망” 라보뱅크 발표 - 꾸준한 수요, 주요국 경제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안정세 예상

글로벌 금융 및 시장분석 전문기업인 라보뱅크가 최근 발표한 4/4분기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세계낙농시장이 2021년에는 꾸준한 수요와 주요국 경제 회복으로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라보뱅크는 우선 2021년 7대 유제품 수출국(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EU, 미국, 호주)의 원유생산 증가가 2020년 대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코로나19로 유제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본격 보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고, 주요국의 경제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도 유제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반면 2021년 초 최대 유제품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생산량이 2020년 대비 약 6% 늘어 유제품 수입수요가 줄고, 2021년 1/4분기에도 EU와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가 이어질 경우, 식품서비스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산업동향] 2021년 세계 낙농, “경제회복으로 안정세 전망” 라보뱅크 발표 - 꾸준한 수요, 주요국 경제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안정세 예상’,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1월 4일자
- 원문출처: farmweekly.com.au, 12월 29일

3. (2020년 1월 4일) IDF 리포트 : 코로나 19가 세계낙농업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는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시작되지도 않았고, 국가별 대응도 달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낙농부문은 효율적인 대응으로 빠른 적응력과 회복력을 보여 주면서 필수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IDF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응 매뉴얼과 정보를 회원국에 신속히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아울러 회원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각국 낙농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IDF 리포트 형식으로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21개국이 참여한 IDF 코로나 영향·조사결과 중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 원유생산 및 유가공 부문

생산현장 원유폐기는 미미, 대유행 초기에 국한

급격한 수요 변화에 제품별 생산량 조절 등 유연한 대처

코로나19가 원유 생산에 미친 영향은 국가별로 달랐다. 일부 국가들은 잉여가 발생해 원유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은 그렇지 않았다. 다만, 유럽을 포함한 북반구 국가들이 원유생산 피크시기와 코로나 대유행이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수급 불균형에 따른 생산 감축 또는 폐기 등의 조치는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났다.

유가공 부문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정부 또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잘 지켜졌고, 식품 가공부문은 추가적인 위생 강화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낙농산업 종사자가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 운송 및 소매 부문

일부 국가에서 식품폐기 발생, 기부 등 폐기량 절감 노력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와 산업관계자들의 협력 하에 근로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새로운 규약을 마련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원활한 식품 유통을 위해 원산지, 성분 표기 등 제품의 라벨링에서 임시적으로 유연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팔리지 않은 제품을 폐기하는 등 식품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은 제품을 의료진 또는 기부단체에 전달하거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식품 폐기물 절감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

□ 유제품 교역 부문

2/4분기에는 각국 봉쇄 조치로 교역량 급감

7월 이후 안정세 회복, 가격은 이전 수준 회복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부 나라에서는 해외에서 운송되는 제품의 배송이 지연되는 등 교역에도 차질을 빚었으며, 일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되거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품 교역은 각국의 봉쇄조치와 혼란으로 2/4분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어 향후 진행상황과 전망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5월 이후 각국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지고 봉쇄조치도 단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7월 이후 국제 유제품시장은 빠른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현재 유제품 가격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한 상태다.

□ 유제품 소비 부문

대부분 국가에서 음용유 판매량 10% 이상씩 증가
유제품의 영양 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 높아져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제품 소매 판매가 증가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두 자리수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음용유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평균 약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이후 실온보관이 가능한 UHT 우유의 사재기가 늘어나며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사재기가 진행되고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강식으로서의 유제품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식품 서비스업의 영업 중단으로 가정내 유제품 소비를 견인하며 유제품 수요와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제품의 영양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 Next Step

2021년 말 추가 조사 및 식품안전 위기 대응 매뉴얼 구축

코로나로 인한 산업구조 및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낙농부문이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는 필수 산업으로 인식된 점, 건강 및 면역력에 대한 관심 증가, 식품 안전과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 확대, 코로나19에 특히 취약점을 보였던 비만에 대한 WHO와 각국 정책당국의 관심증가(설탕세, 주표시면영양등급제, 가공식품 규제 검토)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이에 IDF는 2021년 말 코로나19가 유제품 시장과 소피패턴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과학사업조정위원회는 실무팀을 구성해 코로나 19와 같은 공중보건 또는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현안리포트] IDF 리포트 : 코로나 19가 세계낙농업계에 미친 영향’, 「정보광장-핫이슈-세계동향」, 2021년 1월 4일자

- 원문출처: https://www.dairy.or.kr/kor/sub02/menu_01_3.html?pmode=view&table_idx=19922

4. (2021년 1월 15일) IGC, 2020/21년 전 세계 곡물 생산량 감소 예측, 옥수수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연료 에탄올과 양조 분야 수요 계속 감소 불구, 전체 소비 5년 연속 증가 예상

국제곡물위원회(IGC)는 목요일 세계 곡물 생산량을 2020/21년 900만 톤 감소한 22억 1,000만 톤으로 전망했으며, 시즌 소비량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월간 업데이트에서, IGC는 옥수수에 대한 전망을 1,300만 톤으로 줄였는데, 이는 밀 전망의 상향 조정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IGC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은 연료 에탄올과 양조 분야의 수요를 계속 감소시키고 있지만, 전체 소비는 5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곡물 재고량은 6억 1,100만 톤으로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GC는 “이 같은 감소는 전적으로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위축으로 인해 옥수수 재고가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밀 재고량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IGC는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을 11억 3,300만 톤으로 1,300만 톤 줄였지만, 전년도 수확량 11억 2,400만 톤보다는 약간 증가한 수치이다. 세계 최고의 작물 재배국인 미국의 생산량은 3억 6,030만 톤으로 이전 예상치 3억 6,850만 톤보다 줄어들었다.

브라질의 2020/21년 옥수수 수확량은 1억 580만 톤으로, 이전의 1억 1,250만 톤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이전 시즌의 1억 250만 톤보다는 높다. 2020/21년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생산량은 이전 5,430만 톤에서 5,200만 톤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IGC는 2020/21년 세계 밀 생산량을 3백만 톤 증가한 7억 6,800만 톤으로 증가시켰으며, 호주, 캐나다, 러시아의 추정치는 모두 상향조정되었다. IGC는 2021/22년 세계 밀 수급 전망에서 기록적인 생산과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재고량의 증가를 지적했다. 2021/22년 세계 밀 생산량은 3% 증가한 기록적인 7억 9,100만 톤을 기록했으며 소비량도 3% 증가한 7억 7,5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GC는 세계 밀 재고량이 2021/22년 시즌 말까지 1,500만 톤 증가한 사상 최대인 3억 9,00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IGC cuts forecast for 2020/21 global grains production(IGC, 2020/21년 전 세계 곡물 생산량 감소 예측)’, 「해외곡물시장정보」 해외곡물시장 뉴스 및 브리핑, 2021년 1월 15일자 (http://www.krei.re.kr:18181/board/briefing/view/wr_id/5735/page/1)

- 원문출처: Thomson Reuters

5. (2021년 1월 20일) 영양식품 시장 트렌드 Top 4, FrieslandCampina 발표 - 영양식 확대, 맞춤형 제품, 편리성, 스토리텔링·지속가능성 등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네덜란드 유가공 조합인 FrieslandCampina가 영양식품 시장의 트렌드 4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건강과 웰빙을 위한 영양식 확대. 코로나19 확산 이후,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건강식 수요도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장과 뇌 건강 그리고 면역력 증진 등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단백질 강화식품과 같은 건강

식음료 제품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둘째, 개별 맞춤형 제품 생산. 차별화된 개별 맞춤형 영양제품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업계에서는 주요 소비층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영양식품 시장에서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큰 반면, 이들의 선호도를 고려한 제품은 부족해, 이를 공략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셋째, 편리성.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시간적인 문제로 식사를 못하거나 거르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가 높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끝으로 스토리텔링과 지속가능성.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 생산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제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업계의 주요 과제로 꼽힐 전망이다. 업계관계자는 코로나19로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영양식에 대한 니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식품업계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대비해야 할 것 이라 말했다.

(출처) IDF Korea(낙농진흥회), ‘[시장동향] 영양식품 시장 트렌드 Top 4 - FrieslandCampina 발표 - 영양식 확대, 맞춤형 제품, 편리성, 스토리텔링·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낙농뉴스」, 2021년 1월 20일자
- 원문출처: dairyindustries.com, 1월 15일